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차집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차집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차집

완성된 이름

차집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예전에, 부유한 집에서 음식 장만 따위의 잡일을 맡아보던 여자. 보통의 계집 하인보다 높다.

요약 연대표

표기	20세기	현재
차집		
추집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예전에, 부유한 집에서 음식 장만 따위의 잡일을 맡아보던 여자. 보통의 계집 하인보다 높다.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4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차집'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예전에, 부유한 집에서 음식 장만 따위의 잡일을 맡아보던 여자. 보통의 계집 하인보다 높다.

☞ 차집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차집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차집 사전 표기 요약	—	—	—	—	—	● →
차집 문헌 수록 표기	—	—	—	—	—	● →
차집 문헌 수록 표기	—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차집
20세기현재
- 차집
20세기

↳ 차집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차집’은 20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표기와 소리의 특징

‘추집’, ‘찻집’과 같은 표기도 나타난다. ‘추집’은 ‘·’와 ‘ㅏ’가 섞여 표기된 것이다. ‘찻집’은 제2음절이 된소리로 발음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 문헌 속의 차집

전체 용례 4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추집, 차집, 찻집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추집, 차집, 찻집

66 문헌 용례

(금) 아씨 혼주 계셔요 차집 마누라는 어디 갔슴닛가 (평) 너 왜 인지 왔냐냐 몇 차례를 불렀는디 차집은 제 집에 잠간 된겨 오겟다고 갔단다.

㉮ 현대어 풀이

(금) 아씨, 혼자 계세요? 차집 마누라는 어디 갔습니까? (평) 너 왜 이제 왔느냐? 몇 차례를 불렀는데. 차집은 제집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갔단다.

66 문헌 용례

안이 되는 놈은 잡바져도 코가 썩어진다고 정길이가 일이 점점 억척이 되노라고 차집 마루라가 일껏 밥 가지고 갔다가 그중에 밥을 늦게 히 왔느니 반찬이 업나니 허는 가진 포달을 평양집에게 당하고.

㉮ 현대어 풀이

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정길이가 일이 점점 억척이 되노라고 차집 마루라가 일껏 밥을 가지고 갔다가 그중에 밥을 늦게 해 왔느니 반찬이 없느니 하는 갖은 포달을 평양집에게 당하고.

66 문헌 용례

더이는 본관 수도덕 차집으로 계신 이오 이 사람은 나의 먼촌 족하벌 되는 이라오 하더니.

㉮ 현대어 풀이

“저이는 본관 사도덕 차집으로 계신 이요, 이 사람은 나의 먼촌 조카뻘 되는 이라오.” 하더니.

66 문헌 용례

우리 아버지 상수(喪事) 나신 지 몇칠이 못 되어 주길 집으로 우리 모녀를 데려다 두고 우리 어머니는 차집 마누라 부리듯 나는 아히 종 부리듯 하니.

역 현대어 풀이

우리 아버지 상사(喪事)가 나신 지 며칠이 못 되어 자기 집으로 우리 모녀를 데려다 두고 우리 어머니는 차집 마누라 부리듯 나는 아이종 부리듯 하니.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차집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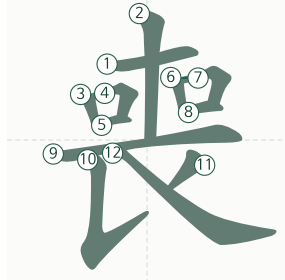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차집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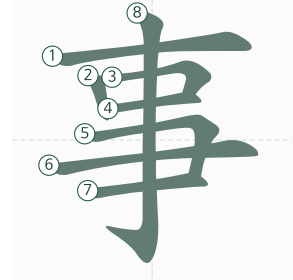
뜻·음 잃을 상
총 12획 · 부수 口



hanja.wordrow.kr/한자/喪/

事

뜻·음 일 사
총 8획 · 부수 亼



hanja.wordrow.kr/한자/事/